

발간등록번호

75-6470000-000067-08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북도정**

2005 여름호



**경북이 가면 한국의 길이 된다**

1995

2005

www.gb.go.kr

# 여름방학 이색수련 즐기자

## 청소년수련활동 다채로와

경상북도에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건전한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화탐방, 트레킹, 오지마을체험 등 주제도 다양하다.

### | 청소년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 |

시군(단체)명	행 사 명	내 용	기 간	참가인원	연락처(054)
경상북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신문제작 캠프	신문발간과정 실습	8.10~8.12	청소년 100명	436-0184
	금연홍보캠프	금연홍보 CF 뮤직비디오 만들기	8.16~8.18	청소년 200명	"
	비즈쿨경제캠프	창업과 경영, 현장체험 등 비즈니스 학습	8.16~8.18	청소년 50명	"
경상북도 청소년복지관	대중매체속의 성문화 읽기 캠프	집단상담 및 수련활동	8.2~8.4	또래도우미 120명	853-3011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영양자연생태공원체험	8.2~8.5	청소년 100명	857-4445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기행	장애인 문화유적답사 도우미 활동	8.7	청소년 30명 장애인 10명	"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문경세계 문화유적 트레킹	8.7~8.11	경북, 전북 청소년 80명	"
포항생명의 숲	자연과 함께하는 숲속 가족캠프	자연현장체험, 별자리찾기, 부모와 함께 캠프설치	8.8~8.10	학부모, 학생 30세대	244-5015
포항 청소년 수련원	또래도우미 한마음캠프	또래도우미 연찬회, 청소년 인터넷 중독사향 대책교육	8.4~8.7	청소년 150명	245-6593
	청소년수련관 여름방학특강 실시	마법천자문 외 7분야	7.26~8.21	청소년, 학부모	245-6953
경주시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8.6	청소년 1,000명	779-6091
	해변상담실 운영	MBTI 및 STRONG검사	8.4~8.7	청소년 200명	779-6715
	제4회 서라벌화랑무예대회	전통무예, 격기, 검도	8.7	청소년 700명	771-8331
	취미(교양)강좌	단소와 대금외 12과정	7.25~8.20	청소년 및 학부모 375명	779-6715
	영화교실 운영	애니메이션, 뮤지컬, 액션 등	8.1~8.25	청소년 및 학부모 2,500명	779-6715
	정서순화프로그램 운영	한국춤, 나이트댄싱, 팝송	8.1~8.27	청소년 및 학부모 150명	779-6715

Summer

# Contents

- 2**    **이의근 도지사에게 듣는다 - 글로벌 경북도정의 초석을 세운 민선자치 10년!**
  - 도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경북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 6**    **1995 - 2005, 사진으로 보는 민선자치 10년**
  - 앞서가는 비전 수립으로 '강산을 바꾼 10년!'
  
- 26**   **도정이모저모**
  - 영일만 신항을 환동해시대 국제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 응급의료 중추기능 담당할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 개원
  -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지도자 초청 새마을운동 전수
  - 경북도, 日아사히글라스와 3천만불 투자협정 체결
  
- 30**   **알아봅시다**
  
- 31**   **건강이야기 - 여름철 여행에서 주의할 점**
  
- 32**   **가 볼만한 곳 -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 34**   **경북의 맛 - 더위를 몰아내는 '포항 물회'**
  
- 36**   **도정단신**
  
- 37**   **도의회소식**

경북도정 2005 여름호 (통권365호)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이의근 / 편집인 : 윤정길

발행일 : 2005년 8월 12일 / 인쇄처 : 흥익출판인쇄사 ☎ (053) 356-0088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 950-3058, 2031 FAX. 956-4926





“도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경북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 민선자치 10년을 돌아보신다면

서양에서는 지방자치가 정착되는데 100년 이상 걸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짧은 기간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이룬 셈입니다. 지방자치 10년은 주민참여를 유발하여 지역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키우고 또 국가발전의 중심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시켰으며,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 확보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만드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부의 작은 문제점이나 현상만 보고 이러한 성과를 폄하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나라가 안정을 잃지 않았던 것 또한 민선자치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음에도 지역적인 권한의 이양에만 치중되어 아직도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선자치 10년의 경북도정 성과를 꼽는다면

1995년 7월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경북의 장기발전계획인 ‘21세기 신경북비전’을 수립하여 자치경북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10년 동안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중앙정부와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도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경제제일도정’을 기치로 내걸고 국내·외 투자유치, 수출 촉진,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풍부한 지역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여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문화박람회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세 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제영상 수출과 2006년에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기로 하는 등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일본 등의 자치단체를 아우르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창설을 주도하였고 ‘상설사무국’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서부 정보기술(IT), 동부해안 신소재(NT) 등 권역별로 특성있는 산업벨트화를 본격 추진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29.6%인 상태에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따른 개발 수요를 감당하기에 미흡했습니다. 또 태풍 루사와 매미 등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FTA의 확대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친환경농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도 농어촌에 어려움이 많아 아쉽습니다.

### 거버넌스적 리더십을 강조해 오셨는데

요즘의 행정은 과거와 달리 서비스의 기능이 강화되어 국내 다른 자치단체와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는 물론 민간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역량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과거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행정요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사회의 갈등과 대립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단체장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정과 통합을 통해 의제를 설정하고 일사분란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거버넌스적 리더십입니다. 단체장이 비전이 없으면 해당 자치단체는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또한 그러한 역동성을 지닌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05년 7월 한 주간지가 경북·대구지역의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거론되었는데...


도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현재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도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10년 동안 민선 경상북도지사로 일을 하면서 항상 밝가 벗은 채 유리병 안에서 헤엄친다는 심정으로 일해 왔습니다. 지켜보시는 도민 여러분들에게 보다 투명한

일 처리를 보여드리고, 도민 여러분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도지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 남은 임기동안의 역점사업은

이제 1년이 남았지만 이 기간은 지금까지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맞춰 새로운 도정방향을 설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의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오던 시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북이 동북아 지역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도록 행정 역량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 도민들에게 한마디

결코 짧지 않았던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역경에 처한 도민들의 짐을 얼마나 들어주었는지, 그리고 옹도 경북의 영광을 재현하고, 지방화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자랑스러운 경북을 만들어 달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얼마나 실현하였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남은 1년 동안 10년 전 민선 도지사로 첫 출발할 당시의 그 초심을 더욱 담금질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앞서가는 비전 수립으로 산업구조 개편 통한 성장동력산업




# ‘강산을 바꾼 10년!’ 육성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

300만 도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도정을 출범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발전전략인 ‘21세기 신경북비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경북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10년 동안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경상북도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전통문화유산의 보고인 경북의 특징을 살려 개최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고, ‘인터넷 새마을 운동’으로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좁히고,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으로 여성의 능력개발에 매진하였으며 특히, 과학기술이 미래의 자산임을 깨닫고 IT, BT, CT 등 지역특성에 맞는 차세대 성장력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제일도정을 추진한 바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42%를 경북이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국내·외 투자유치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동북아 자치단체연합’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상설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국제교류의 모범을 보이고, 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손길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에서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낮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 한 발 앞서 준비한 “21세기 신경북 비전”



1995년 7월 민선자치도정 출범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21세기 신경북비전”이란 지역의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도정운영의 큰 틀로 삼았다. 이후 “21세기 신경북비전”을 보완·발전시킨 “경북 새천년만들기”를 1999년 12월에 발표,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정 추진



권역대별 잠재성을 살리는 『새천년 새살림』 구도

## 경제제일도정을 기치로 세일즈 경북 추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타 시·도에 앞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제일도정을 기치로 내걸고 적극적인 '세일즈 경북 활동'을 펼친 결과 2004년도 외국인 투자 7억불과 수출 430억불 달성으로 전국 무역흑자의 42%를 기록하였고, 2002년 이후 3년 연속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낮은 살기좋은 지역으로 평가



# 미래 경북이 먹고 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도내 권역별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북부권에 바이오산업(BT), 중서부권에 첨단 IT산업, 동해남부권에 부품소재산업(NT)과 문화컨텐츠산업(CT)을 중점 배치하는 등 경상북도의 미래를 주도할 첨단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

##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 통한 「지역균형개발」 촉진



울릉 일주도로

포항 신항만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포항간 및 김천~여주간 고속도로 완공과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추진, 포항 신항만 건설 등 지역균형개발과 환태평양시대 동북아의 거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

##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노벨문학상 수상자 올레소잉카 방문

풍부한 지역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준비한 세계 최초의 문화박람회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세 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문화경복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2003년 행사의 주제영상인 “화랑영웅기과랑전”이 해외로 수출되어 전 세계 40개국 250개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2006년에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기로 하는 성과 달성

## 동북아 중심 자치단체를 목표로 국제교류협력 강화



경상북도는 1996년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 29개 자치단체가 참가한 “동북아자치단체 연합”의 창설을 주도하고 ‘상설사무국’ 유치, 현재 북한, 몽골이 참가하여 6개국 40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동북아 최대의 국제기구로 발전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와 자매결연



중국 영하회족자치구와 우호교류협력 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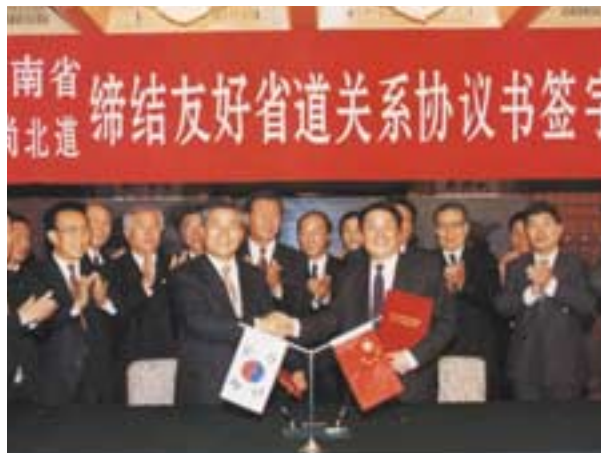
프랑스 알자스주와 자매결연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 자매결연



터키 불사주와 자매결연



중국 하남성과 자매결연

## “인터넷 새마을운동” 창안 및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추진



도시와 농촌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 새마을운동에 인터넷을 접목하여 “인터넷 새마을운동” 창안, 농촌 마을에 정보화사랑방을 설치하고 이동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베트남에 새마을운동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추진



##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경북」 실현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등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경북”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효의 모범고장 경북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가한 이의근 도지사와 카터 전 미국대통령(경산문화마을)



##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의 경상북도 정체성 확립



경상북도는 1996년 개도 100주년을 맞아 “경상북도민의 날” 제정하여 도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한국국학진흥원을 개원하여 지역의 찬란한 문화와 정신문화를 재조명하는 등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



‘독도지키기 종합대책’ 실행 앞서 독도현지답사(2005. 3. 19)

우리 땅 독도를 가꾸고 활용하기 위해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민들의 정주기반시설 확충과 독도 해양연구기지 신설, 해양생태 및 해저광물자원조사, 관광육성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 300만 도민을 대변하는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



###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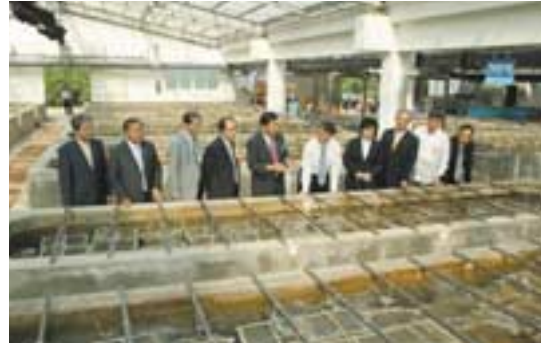


기획과학위원회

경상북도의회는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이 모인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행정사회위원회



교육환경위원회



농정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일만 신항을 환동해시대 국제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두 4선석에 3,316억원 투자, 연간 5천억원의 생산 효과 유발

포항 영일만 신항 민간투자사업 컨테이너부두 기공식이 4월 28일 이의근 도지사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각 기관단체장과 지역상공인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흥해읍 용한리 신항건설현장(물양장)에서 거행되었다.


포항영일만 신항은 민자컨테이너부두 기공식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1조 7,277억원을 투자(국비 1조 3,895억원, 민자 3,382억원)하여 방파제 8.8km, 접안시설 16선석(컨테이너 4선석) 규모로 연간 1천4백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추게 되며, 2011년 완공예정이다.

신항이 완공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1만 여개의 일자리 창출, 3만여명의 인구 증가와 연간 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디지털전자정보단지 기공식 개최  
 구미지역 전자정보산업 R&D Hub기능 수행

경상북도는 6월 1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에서 산업자원부 관계관, 지역 국회의원, 구미시장, 각 대학교 및 연구소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R&D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구미지역은 대기업 생산기지중심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극복하고, 생산과 R&D기능이 결합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산학연관 협력체제 중심의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중추기능 담당할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 개원  
의료시스템 전문화로 사고유형별 신속한 대처



경북지역의 응급의료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현대식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가 5월 23일 안동시 수상동에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되었다.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공사비 274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30,934㎡(연건평 10,00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로 응급환자 분류소, 소생실, 격리치료실, 응급수술실 등을 갖추었으며, 의료시스템도 대량재해팀, 교통사고전문팀, 독극물팀, 응급소아팀, 뇌혈관팀, 심장소생팀, 외상전문팀 등으로 전

문화하여 사고유형별로 신속한 대처프로그램을 가동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사망률 감소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자산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의근 도지사, 캄보디아 속안(SOK AN) 부수상 회동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성공 개최 위해 노력키로




이의근 도지사는 5월 24일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캄보디아 속안(SOK AN) 부수상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회동, 국제행사 개최 공식 승인을 앞두고 있는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지사는 2006년 양코르행사를 계기로 세계문화유산지구인 '경주'와 '양코르와트'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문

화, 경제교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그동안의 문화적 노하우를 살려 훌륭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당부했다. ➡

##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지도자 초청 새마을운동 전수 타이응우엔성 마을지도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 21명 초청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1일 베트남 룡반마을에  
서의 새마을회관 기공식을 시발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해외보급 전초기지 육성을 위한 베트  
남 새마을운동 보급사업의 하나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마을지도  
자와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 21명을 초청하여  
새마을운동을 전수했다.

이들 연수단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과 도 농  
업기술원에서 농기계 운전조작법과 다양한 작물  
의 재배 기술 등을 교육받고, 성주군 관내 새마을 참외농장과 성주댐, 경지정리지구, 양돈단지 등 수범새  
마을을 견학하였다. 




## 도레이새한(주) 투자 유치 마침내 결실 구미 국가4단지에서 제3공장 기공식 가져

세계적인 IT·첨단 신소재 생산업체인 도레  
이새한(주)가 6월 10일 사카키바라 도레이(주)  
사장과 이영관 도레이새한(주) 사장 등 회사 관  
계자와 이의근 도지사, 김관용 구미시장, 우라  
베 토시나오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지역 기관단  
체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에서 제3공장 기공  
식을 가지고 대규모 첨단 생산설비 건설을 시작  
했다.



도레이새한(주)는 2009년까지 총4억불(FDI 1억불)을 투자하여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 24블럭내 6만평  
의 부지에 2만4천여평의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연성회로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2차전지용 핵심소재 등  
IT 관련 첨단 신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마에다가츠노스케(前田勝之助) 도레이(주) 명예회장은 한국에 대한 직·간접투자과 기술 이전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6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금탑산업훈장  
을 수상했다. 

## 경북도, 아사히글라스와 3천만불 투자협정 체결 이의근 도지사, 일본 부품소재기업 유치 위해 동경 방문



경상북도는 일본의 핵심 부품소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조환익 산업자원부차관, 김관용 구미시장, 홍기화 KOTRA사장, 현대·삼성·LG 등 국내 26개의 기업인 대표들과 함께 투자유치단을 구성,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에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의근 도지사는 지난해 2억4천만불의 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 아사히글라스사와 추가로 3천만불의 투자협정서를 체결하고, 일본의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사인 C사 CEO와도 접촉하여 경상북도의 투자환경과 투자장점 등을 홍보하였다.

아사히글라스사의 이번 투자는 아사히글라스의 투자회사인 구미 소재 한옥테크노글라스의 제2공장 건설을 위한 증액 투자로서 구미 국가4단지내에 3만2천평 규모의 PDP용 유리기판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2007년까지 1단계로 3천만불을 투자하게 된다. 


## 나노산업 발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나노기술집적센터 기공 산·학·연 111개 기관 참여, 5년간 1,104억원의 사업비 투입



경상북도는 6월 27일 포항가속기연구소 인근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예정 부지에서 이의근 도지사, 산업자원부 장관, 대학·산업체 등 참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나노기술집적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은 산업자원부가 향후 첨단기술의 핵심이 될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타 자치단체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결과 지난해 7월 나노·소재재료 분야의 사업대상자로 경북도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포항시, 구미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포항공대, 경북테크노파크, 포항산업연구원 등 24개 대학·연구소 및 LG전자, 삼성SDI 등 82개 산업체 등 111개 기관이 참여하여 5년간 총1,104억원의 사업비로 장비구축,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화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신라 천년의 역사를 즐기는 또다른 방법

경상북도는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야간체험프로그램인 「달빛신라역사기행」을 경주 일원의 문화유적지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달빛신라역사기행」은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경북관광협회와 신라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야간을 이용해 옛 궁궐터, 왕릉, 사찰 등 문화유적을 돌아보면서 다양한 국악공연을 경험하고, 무료 차 시음과 전통음식 체험 등으로 차별화 한 테마관광프로그램이다.

참가대상은 가족, 연인, 동호회를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공연비, 교통비, 백등, 식사비 등을 포함 1인당 13,000원(일반), 10,000원(회원 및 청소년)이다.

참가를 원하는 관광객은 경주신라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silla.or.kr> 이메일 [silla@silla.or.kr](mailto:silla@silla.or.kr) 전화번호 054-774-1950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10월까지 매월 2차례 정도(음력 보름전후) 총 11회 정도 실시될 예정이며, 주요코스로 안압지, 영지, 쾌릉, 황룡사터, 문무대왕릉, 감은사, 불국사, 포석정 등 경주일원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053-950-3333)

## 산나물·산약초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 산주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경상북도는 최근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과 웰빙 바람 등에 편승해 급증하는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채취 행위에 대해 5월 26일부터 산림청, 경찰,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촌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 요령을 계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특히, 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대량 채취 및 간암, 간 기능 증진에 효험이 높다는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과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채취와 수집상,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희귀식물 및 약용수종 주요 자생지역 등에는 감시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호회원, 관광객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길목 지키기와 순찰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에는 수사기동반을 즉시 투입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임산물에 대해서도 역추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산림과 053-950-2616)



## 뜨거운 여름철 활동에는 일사병 예방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

휴가철이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푸른 녹음의 산과 들, 계곡으로 모두들 앞다투어 발길을 옮긴다.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건강을 챙기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 \* 지나친 선풍은 일광 화상 우려

적당히 그늘린 구릿빛 피부가 건강미를 상징하게 되면서부터 휴가철 백사장에는 선풍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무리하게 선풍을 즐기다가 일광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일광화상에 걸리면 자외선에 노출된 후 8시간 정도 지나 피부가 가렵고 따끔거리기 시작한다. 하루나 이틀정도 지나면 피부가 벌겍게 되고 통증이 온다. 심하면 물집이 생기거나 벗겨지기 시작한다.

이때는 찬물찜질을 하면 도움이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부신피질호르몬이 함유된 연고를 바르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소염진통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집이 생기면 가급적 터지지 않게 하고, 만약 터졌다면 잘 소독해줘야 한다.

일광욕은 가능하면 오전 11시 이전과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광욕을 할 때는 시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자외선 차단크림을 발라야 한다. 자외선차단지수는 적어도 15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하고, 햇볕에 노출되기 1시간 전에 바르는 것이 좋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영을 하고 난 후에는 다시 발라줘야 한다.

그리고 자외선이 강한 피서지에서 선글라스 착용은 자외선은 물론 눈부심, 눈 피로를 예방해주고 장기적으로 백내장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 \* 땀을 흘렸으면 물보다는 주스를

일사병이라 부르는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 같은 것들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무리하게 일어나 운동을 할 경우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의 수분과 염분이 모자라서 생기는 것이다.

일사병에 걸리면 두통, 메스꺼움, 구토, 쇠약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근육경련 등이 생겨 의식을 잃기도 한다. 때문에 체온조절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약자,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주위 사람이 일사병에 걸려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제일 먼저 시원한 곳에 눕도록 도와주고 상자나 담요를 이용해 다리를 높여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을 늘려 의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의식이 돌아오면 소금을 약간 탄 물을 먹이는 것이 좋다.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땀을 많이 흘렸으면 맹물보다는 주스나 스포츠이온음료 등 염분이 들어 있는 것이 좋다. ☞

## 친환경농업의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이색 피서'

'친환경 농업,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라는 주제로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울진 왕피천 엑스포공원에서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펼쳐진다.

연어의 회귀처로 유명한 울진 왕피천이 동해와 만나는 곳에 자리한 행사장 주변에는 오리떼가 유유자적 노닐고 있는 유기농 경작지가 펼쳐져 있고, 행사장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꽃이며 열매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도 충분하다.

행사는 크게 농문화, 전시, 공연, 체험, 친환경 상품 개발, 학술토론 등 6개 분야에 국내·외 친환경·유기농 기술에 대한 모든 정보와 유기농 선진국의 사례들을 한곳에 모아 일반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제품의 선택기준을 확인시켜주고 우리나라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특화작목관

관심을 끄는 볼거리로는 몸통은 배추, 뿌리는 무인 '무추', 몸통은 토마토, 뿌리엔 감자가 열린 '토감', 나란히 뻗어있는 두가지 중 하나엔 고추가, 다른 가지엔 가지가 달린 '고가' 등 신기한 접목식물과 약용작물, 허브, 식충식물, 말하는 식물, 춤추는 나무,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하는 제충식물 등을 볼 수 있는 "특화작목관"이 있다.

### 다양한 공연과 체험거리

이외에도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80여종의 야생화를 식재한 야생화




관찰원, 생태연못, 울진금강송 산책로와 지압보도 산책로, 조롱박·수세미·색동호박·천궁·허브 등의 식물로 꾸며진 6곳의 생태터널, 해양생명관, 임업전시관 등의 볼거리가 있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는 해외 각국의 이색민속공연과 마당극, 퍼레이드, 타악퍼포먼스 등 갖가지 축하공연과 제기차기, 그네뛰기, 투호 던지기 등 전통놀이와 직접 흙을 빚으며 함께 하는 흙 놀이, 친환경 농산물 수확, 민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해놓고 있다.

### 친환경 캠프촌에서의 이색 피서

행사장 바로 옆의 아름다운 해변에서는 인기연예인을 초청하여 “친환경 열린콘서트”, “친환경 바다영화제” 등의 특별행사가 개최되고, 특히 왕피천과 동해가 만나는 천혜의 휴양지인 해변에 1만평 규모로 2,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친환경 캠프촌을 조성하여 이 곳을 찾는 관람객들이 저렴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망양정·월송정 등의 빼어난 경치와 명사십리를 자랑하는 해수욕장, 울진의 관광 1번지인 성류굴, 천년고찰 불영사, MBC-TV ‘사랑한다 말해 줘’와 SBS-TV ‘폭풍 속으로’ 등의 드라마 세트장인 근남면 행곡리 대나무 숲과 죽변 등대 등도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엑스포 입장권 소지자는 성류굴 무료입장과 백암·덕구온천 입욕료 및 불영사·향암미술관 입장료 50% 할인혜택도 받는다.

울 여름은 청정의 고장, 울진으로 떠나보자! 





## 얼음을 띄운 시원한 생수 한 컵을 부어 국물째 마시는 물회

“물회의 진미를 느끼려면 얼음을 띄운 시원한 생수 한 컵을 부어 국물째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회와 곁들여 나오는 찌개맛도 일품이지요. 헛감으로 쓰고 남은 생선뼈와 머리는 꼭 고아 찌개를 만드는데 시원한 맛과 얼큰한 맛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습니다. 물회에다 밥, 찌개, 찬을 곁들이면 한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생선회를 마신다(?)’ 한치·광어·가자미·우럭·농어 같은 싱싱한 바닷고기를 얇게 썰어 갖은 양념에 야채와 고추장을 곁들여 먹는 물회가 바로 그것인데, 잃었던 입맛을 돋우는데 제격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포항 물회’가 유명하다. 포항을 찾는 사람이라면 한


변쫄은 맛보고 가는 널리 알려진 향토 음식이다. 시원한 맛과 함께 영양보충까지 되기 때문에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청정 동해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을 회를 쳐서 물을 부어 훌훌 마셔가며 먹는 물회는 원래 배 위에서 어부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사 대용이었다. 처음에는 어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음식이 차차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음식의 명칭도 자연 '포항 물회'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이외에도 제주도의 '자리 물회', 강원도의 '오징어 물회', 전라도의 '낙지 물회' 등등 전국 각지에 맛도 다양한 물회들이 알려져 있다.


물회를 처음 대하는 사람 중에는 넓은 그릇에 배를 채 썰어 깔고 그 위에 막 떠낸 회를 얹고 갖은 양념이 가미된 모습 때문에 '비빔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물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무턱대고 비벼 먹는 데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다른 회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특히 물회는 흰 살 생선을 사용해 단백질이 풍부한데 양념으로 사용되는 배와 야채가 갈증을 해소하고 소화를 도와준다. 또한 마늘은 물고기의 독과 냄새를 제거하며 참기름은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해 건강효과가 뛰어나다.


이렇듯 물회는 체력보강에 좋은 음식이며, 술 한 잔 뒤 속풀이에도 그만이다. 




### 자연환경보전지도원 수련대회 및 자연정화활동 개최

경상북도는 5월 3일 성주군 성박숲에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성주군 기관단체장과 자연보호협의회원 등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자연환경보전지도원 수련대회」를 개최,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행사장인 성박숲 일원과 주변 하천, 도로변에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했다. 


### 대양주 해외 관광홍보설명회 개최

경상북도는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와 호주 시드니에서 언론사와 여행업계 종사자 등을 초청하여 해외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마케팅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경상북도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농림부 농정업무평가 우수도로 선정

경상북도는 농림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2004년도 농정업무 추진실태 종합평가에서 고품질 쌀 생산대책, 가축방역, 농업정보화추진 등의 중점분야별 시책추진과 차별화시책 및 농정현안 대처노력 분야에서의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도로 선정되었다. 


### 동남아 3국 시장개척활동 2만8천6백만불 계약성과

경상북도는 지난 5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에서 도내 11개 생활용품 및 정밀기계 생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장개척활동을 펼쳐 2만8천6백만불 계약추진과 5만3천4백만불 상담실적 성과를 거두었다. 


### 차상위계층 희귀·난치·만성질환자 발굴 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지난 5월 25일 춘천에서 개최된 전국의료급여담당 공무원 워크샵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4년도 의료급여지원 사업 중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포상금 1백만원을 받았다. 한편, 포상금으로 받은 1백만원은 희귀·난치성 시각장애로 어렵게 살아가는 안동시 김순연씨와 예천군 박영희씨에게 각각 50만원씩 지원, 위문하였다. 

### 지난해 이어 수질보전 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순조로운 시행, 지하채간 수돗물 공급시설의 공동 설치 추진, 폐수배출 부과금의 징수실적, 낙동강 수계 1,4-다이옥산 저감을 위한 자율협정 체결 등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해에 이어 환경부로부터 수질보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화훼재배농가 네덜란드 선진기술연수 실시

경상북도는 화훼재배의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화훼 최대 생산지역인 네덜란드와 화훼 소비시장인 프랑스에서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기술과 포장디자인, 출하방법 등 선진기술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 독도 현지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198회 임시회를 개최, 상임위원회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독도에서 전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규탄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 4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지능로봇 연구소설립에 관한 건, 경상북도와 스페인 까스띠야레온주간 자매결연 체결안,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img alt="Small blue icon of a speech bubble or document."/>

###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위촉




경상북도의회는 5월 9일 의장실에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9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장에는 박중옥 의원, 간사는 권중연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4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실시하였다. 

### 수도권 공장 신·증설, 13개 시도의회 긴급공동선언문 발표



이철우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의회의장은 5월 23일 각 시·도의회 의장실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과 연계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비수도권 13개 시·도의회의장은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다짐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실시 4·30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도의원 의원선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제199회 임시회를 열어 이의근 도지사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와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어 6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우경(경산1)의원과 김기홍(영덕1)의원, 김진기(영덕2)의원이 의원선서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배정 받았다. 

## 경상북도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경상북도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2,561억원(당초예산 2조9913억원+추경 2,648억원)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되어 보건복지여성국의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비 5억원, 농정국의 명주 박물관 건립 2억원, 한우 품평 경진대회 1억원 등 총 9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농정국 소관의 소 부르세라병 소독약 구입 1억원, 과학정보산업국의 국제 디스플레이 컨퍼런스 3천만원, 문화체육국의 제12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1천만원 등 1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 7억8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했다. 

### 도정 질문 요지



#### 권준택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2006년부터 매년 기업도시 1~2개씩이 추진될 예정인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기업유치 대책,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및 인구가탈 방지 대책, 전국 문화재의 20%를 차지하는 경북의 문화재 보호대책, 문화재 발굴기관이 없어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늦어지는 현상에 대한 대책,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산불방재시스템 구축방안, 임도개설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한혜련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구제역·돼지콜레라·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대응키 위해 가축전염병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을 확대할 방안,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동해안 지역 관광객이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영천, 경주 등 기존 28번 국도변 상권은 빈사상태로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국 최대 원자력 발전집약지로서 지진발생에 대비한 피해예방책은, 중국산 수입 과일이 우리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장찬식 의원 (기획과학위원회)**

경북의 자연환경과 농업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대한 견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는 물론 통일된 마케팅 정책 등 재래시장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의향, 경북지역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곳은 영덕, 청송, 영양, 군위, 의성, 예천, 청도, 봉화 등인데 이들 지역 중 무료요양원이 있는 곳은 의성, 예천, 청도, 봉화로 4곳 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 경북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 등을 질문했다.



**김정기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정치권에서 구상중인 자치구역의 광역화 내지 자치계층의 단층화 추진에 대한 견해, 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한 도의 향후 대책, 버스 사업보조금 배분이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 도내 시·군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노인복지차원에서 난방비를 지원할 의향, 노인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취업알선과 상담, 취업 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성과 등에 대해 질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2004 회계연도 결산심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00회 정례회가 개최, 2004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실시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으로는 김순건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어 7월 1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img alt="blue arrow icon" data-bbox="785 905 805 918"/>

# 우리 땅,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표준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각 기관마다 통일되지 않고 사용해 오던 독도현황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표준안을 마련, 고시하였다.

## | 독도 현황 |

항 목	내 용	비 고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 경북 울진 죽변과 독도간 거리 경북 울진 죽변과 울릉도간 거리 독도와 오키섬간 거리	87.4 km ( 47.2 해리) 216.8 km (117.1 해리) 130.3 km ( 70.4 해리) 157.5 km ( 85.0 해리)	간조시 해안선 기준 최단거리
독도의 면적	187,453m <sup>2</sup>	
동도, 서도, 부속도서의 면적	73,297m <sup>2</sup> , 88,639m <sup>2</sup> , 25,517m <sup>2</sup>	
동도와 서도간 거리	151m	간조시 해안선 기준 최단거리
부속도서의 갯수	동·서도외 89개	
독도 좌표 (동도 좌표)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최고위점
서도 좌표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	최고위점
독도 높이 (서도 높이)	168.5m	
동도 높이	98.6m	
독도의 둘레	5.4 km	
동도와 서도의 둘레	2.8km, 2.6km	
평균 해수면 높이	16cm	



2005년 7월부터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토요휴무제)로  
토요일 전면휴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토요일민원상황실 운영 안내

- 2005년 7월부터 매주 토요일
  - 근무시간 : 09:00~13:00, 직원 2명(민원 1, 여권 1) 근무
  - 처리가능 민원 : 민원안내, 상담, 여권 접수 및 교부 등
-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민원 활용 가능

###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안내 말씀

- 2005년 7월부터는 토요휴무에 따른 처리민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가급적 전일(금요일)까지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요일 민원처리 방문시에는 접수만 하여 주시면 월요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즉시 처리·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에 다소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